

「한국 무가」(韓國 巫歌)의 영역(英譯) — 가독성을 위한 번역전략 및 사례를 중심으로 —

김 미 량
(경인여대)

1. 서론

필자는 1998년 국제문화재단의 설립 30주년 기념 발간 서적 『한국의 무속 문화』를 영역(英譯)하였다. 이 책에는 한국 무속문화의 대가들이 집필한 5편의 글 외에도 당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국의 무속학에 대한 주제로 박사논문을 집필 중이었던 로렐 켄달(Laurel Kendall, 한국명 경달래) 교수의 논문, 그리고 집필자 중 김열규, 이상일, 황루시 교수의 「굿과 놀이」에 관한 대담 등 총 7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김태곤의 「한국 샤머니즘의 정의」는 샤머니즘의 일반적인 정의, 한국 샤머니즘의 정의, 한국 샤머니즘의 지역적 분포 문제 등을, 황루시는 「한국 무속의 특성」에서 무당의 특성, 낯곳을 중심으로 한 무속 세계관, 마을 굿에 드러난 공동체의 의미 등을 서술하였다. 김열규는 「한국 신화와 무속」에서 신화와 제례를, 서대석은 「한국의 무가」에서 무가의 전반적인 특징을

다양한 장르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상월 교수는 「무속의 축제와 놀이」에서 무속에 드러난 축제와 놀이적 성격을 무속의 제의 절차와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 외국 학자로 참여한 로렐 켄달 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접한 방식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번역의 불가능성에 부딪쳤으며 원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번역전략을 찾고자 노력했다. 본고는 『한국의 무속문화』 중 「한국의 무가」(韓國 巫歌)를 영역하면서 경험했던 문제점과 해결책을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텍스트의 번역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어려움, 둘째, 문학 작품 번역의 어려움, 그리고 셋째로 전통 민속 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말하자면, 무가의 영역은 원문과 번역문 간의 순서 바꿈,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는 문제뿐 아니라 장르의 제약까지 겹치는 삼중의 부담을 겪었다 할 수 있다.

이상적인 번역은 원문이 주는 것과 똑같은 감흥을 번역어로 옮겨 놓는 번역이며, 동시에 정확성, 명확성, 자연스러움을 지닌 번역이라는 반웰(Barnwell 1980)의 주장을 명심하되 최소한 번역문 속에서 원문의 메아리가 들려야 한다는 벤야민(Benjamin 2004)의 번역 방향을 따르기로 했다.

먼저 번역 언어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반대의 경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마마리도우(Marmaridou 1996: 60)의 주장이나 “자신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확하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번역 방법”이라고 주장한 뉴마크(Newmark 1988: 3)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세계화의 시대에 목표언어를 영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으므로, 위의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박경일(2008: 135)은 우리의 고전 문화의 수준 높은 영역을 위해서 ‘학제적 협동’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한국 문학의 이상적인 영역 작업은 한국인 한국문학 전문가와 영문학 전문가, 번역 전문가 및 한국 문학과 영문학에 정통한 원어민 간의 긴밀한 협동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2차 번역은 한국인 한국 문학 전문가, 영문학 전문가 및 번역 전문가에 의해서 마련되고, 이 1차 원고를 원어민이 수정하고, 이 수정된 원고는 다시 네 당사자

들의 공동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모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서 필자가 경험한 문제점은 최정화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번역은 대개 외국어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 무가」의 번역은 무가에 대한 필자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 모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 “번역사의 내재적 한계”(최정화 2000: 125)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필자는 모국어에 대한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말의 묘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말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관점에서 말의 맛과 멋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최정화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번역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선 B(외국어)→A(모국어) 번역에서는 번역자가 모국어 문화권의 독자들이 번역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정확히 짐어낼 수 있다. 그러나 A→B 번역을 할 경우는 아무래도 모국어의 문화 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외국어 문화권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문화적 ‘상식’에 번역을 맞추는 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대 우리나라의 많은 문학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되고 있다. A→B 번역에서 문화적 차이를 얼마나 ‘어색하지 않게’ 번역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B→A 번역에서 제기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달리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A→B 번역사가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131)

번역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킨 또 다른 문제점은 원문이 한자(漢字)가 많이 섞인, 때로는 거의 한자로 된 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다. 「한국무가」의 번역 작업은 B(외국어)→A(모국어)라기 보다는 B(외국어)→A(모국어)→C(또 다른 외국어)의 작업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어려움은 장르와 관련되며, 대다수의 무가는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번역 과정에서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시의 형식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따른다. 시 번역의 어려움에 대해 원영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시 번역가는 가능한 시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 . 전통적 서정시 형식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악성, 간결성, 비유와 도치, 반복 등이 있다. 통사적 문체적 등가를 지키며 이런 시적 특성을 번역에 살려 번역을 완성하면 된다. 불가능해보이기만 하던 원문은 서서히 녹아 결모습은 비슷하지만 내용의 구조는 전혀 다르고, 의미는 동일한 번역문으로 새로 태어난다. (2006: 139)

원영희가 제시한 번역 전략을 무가 영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번역의 불가능성에 부딪쳤다. 맨체스터(Manchester 1951: 68)는 “번역 과정에서 단순히 단어에 집착할 경우 원작가의 영혼을 잃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형식에 집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때문에 문학 번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문학텍스트 전체를 한 덩어리로 두고 포괄적인 입장에서 단어나 표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상원(2008: 155)의 입장에 따라 가독성을 지향하는 번역을 수행하였다. 즉, 시 번역에 있어서 형식유지의 중요성은 필자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본문에서 여러 번역 사례를 통해 이것이 왜 어려운지를 설명할 것이다. 물론, 형식 유지를 포기함에 따른 손실은 시의 음악성, 비유, 간결성, 이에 따른 운(rhyme)의 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이점은 맨체스터가 주장한 바와 같이 원작이 지닌 의미(meaning)를 최대한 전달하려는 노력 속에 치러야 할 대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무가의 비논리성, 즉흥성, 무속의식과 관련된 노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작의 혼을 영어로 전달하기 위해 형식과의 타협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역자의 배경지식과 관련된다. 전통 무속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역자는 배경지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서대석 교수의 『한국의 무가』를 영역하면서 필자는 원문에 충실한 교과서적인 번역을 했다. 번역 결과물을 한국 문화를 상당히 이해하고 있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보여 줬더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충실성에 중점을 둔 번역이 영어권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고전 문학의 영역(英譯), 특히 가독성에 충실한 번역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한국의 무속문화』에 수록된 로렐 켈달의 영어 논문 「신딸은 아니었지만」(Not Really a Spirit Daughter, But ...)은 필자가 관련분야의 배경지식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아시아 민속채집 소장품 실장이며 콜롬비아

대학 인류학과에 재직 중이었던 켄달¹⁾은 외국학자로서 한국의 무속 연구 방법을 이 논문에서 상술하였다. 그녀는 만신들과 그들의 단골들은 무엇을 하며 그들이 행하는 의식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가계, 친척, 남녀 문제와 연관되는지, 의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령과 조상신들을 어떻게 불러내며, 병을 치료하면서 참석자들을 어떻게 유도 하는가 등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신당은 아니었지만」에서 그녀가 한국 무속과 관련된 용어를 영어로 표기한 일례는 다음과 같다.

한글	영어
굿	kut
신끼	spirituality (singi)
홍수매이	offerings (hongsumegi)
명다리	myongdari
바라	para
무복	mugam
명산	sacred mountain (myongsan)
미국 작은 무당	American little shaman (miguk chagun mudang)
언니	onni
엄마	omma
굿당	shaman shrine (kuttang)

켄달의 논문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필자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의 무속 문화가 어떻게 조명되며, 무속 문화의 어떤 점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지 알게 되었다. 외국인의 관점에서 우리의 무속문화를 관찰하면서 사용한 개념과 용어 정리가 필자의 번역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켄달의 영역은 우리 무속문화를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

1) 1970년에 평화봉사단 자원 봉사자로 한국에 처음 왔고 그 후 1976년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다시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무속에 대해 외국인으로서 가장 깊이 있는 연구를 한 학자로 손꼽힌다.

한국의 무가」를 영역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과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필자가 사용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 사례분석

‘무가’는 무당이 부르는 노래를 뜻하며 신의 행적, 신을 찬양, 신과 인간의 대화 또는 신에게 인간의 소원을 비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무가」를 소개한 서대석은 문예학의 장르별로 무가를 크게 ‘서정무가’, ‘교술무가’, ‘서사무가’, ‘희곡무가’로 분류하고, 하나의 굿거리예 ‘서정무가’와 ‘교술무가’가 섞여 있기도 하고 ‘서사무가’와 ‘희곡무가’가 섞여 있기도 한다고 말했다. 장르별 분류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일반인이나 외국인들은 굿거리 단위로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본고에서는 무당이 신에게 하는 청배, 축원과 신이 인간에게 전하는 공수로 나누어 실례를 들고자 한다.

청배는 굿하는 장소로 신이 내림하도록 하는 기능을 지닌 무가를 말한다. 신을 청배하려면 먼저 신에게 내림할 시간과 장소를 알려야 한다. 그런데 신이 내림할 시간은 바로 제의가 진행되는 현재의 시간이고 내림할 장소는 제의를 하는 굿당이나 경당이다. <대감타령>은 <닐리리아>라고도 하는데 대감굿 거리에서 불리는 노래이다. <대감타령>에는 ‘얼시구 절시구 널널널널 널리리아’ 또는 ‘얼시구나 절시 자화자 절시구’ 등의 후렴이 들어간다. 대감신을 청배하여 노는 놀이를 <대감놀이>라고 하는데 <대감놀이> 전체는 굿놀이로서 여기에서 구연되는 무가는 대개는 희곡적 성격을 갖지만 아래에 인용한 <대감타령>은 독립된 노래로서 서정시 형식을 따른다. 원문과 필자의 영역본은 아래와 같다.

(사례1)

우리 대감이 어떤 술을 잡술쏘나
 일년을 빚어 일년주(一年酒)요 석달열흘은 백일주(百日酒)라
 마고(麻姑)선녀(仙女) 천일주(天日酒)요
 산중(山中)처사(處士) 송엽주(松葉酒) 이태백의 포도주(葡萄酒)
 혼자 빚으면 걱정주요
 둘이 빚으면 근연주요 셋이 빚으면 공론주라

뚝떨어졌다 낙화주(洛花酒)요 삼월화류(三月花遊)는 두견주(杜鵑酒)요
 구시(九月) 단풍은 국화주(菊花酒)로다.
 열시구 열시구 질시구 (『한국의 무속문화』 89)

Which liquor will our Excellency (Daegam) take?
 After brewing for a year, it becomes a wine of a year, brewing for three
 months and ten days, it becomes a wine of one hundred days.
 It is a wine of a thousand days of fairy Mago,
 A pine leaf wine of a hermit in the mountain,
 A grape wine of Li Po.
 When one brews wine, it becomes a wine of worry,
 When two brew wine, it is a wine of close relationship
 And when three brew wine, it is a wine of public opinion.
 A wine of fallen flowers,
 A wine of Royal azaleas favored in blossomy March,
 A wine of chrysanthemum favored in the autumn time of multi-colored
 leaves.
Eolshigu, eolshigu, jeolshigu. (Culture of Korean Shamanism 125)

이 무가는 누가 빚은 또는 누가 마시는 무슨 술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일
 년 빛은 일년주, 석 달 열흘 빛은 백일주, 마고선녀가 즐긴 천일주, 산중거사가
 즐긴 송엽주, 이태백이 즐긴 포도주, 혼자 빛은 걱정주, 셋이 빛은 공론주, 떨어
 진 꽃잎으로 빛은 낙화주, 삼월 화류 때 즐기는 두견주 그리고 가을 단풍놀이
 즐기는 국화주 등 대감이 마실 술 종류들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서 대감은 대
 감신을 말하는데 대감신은 술 잘 먹고 놀기를 잘하는 풍류신으로 유명하다. 대
 감신을 Excellency 또는 Daegam으로 영역하는 문제로 고민 하던 중에
 Excellency로는 우리가 의미하는 대감의 뜻이 전달되지 못하고, Daegam으로 영
 역하면 외국인에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전달이 안 되는 문제에 부딪혔다. 이렇
 경우 쉐달 이 사용한 영어 의미와 한국어 소리음의 이중 표기를 따라서 ‘our
 Excellency (Daegam)’로 표기했다. ‘마고(麻姑)선녀(仙女) 천일주(天日酒)요’에
 나오는 마고 선녀는 중국 고서 신선전의 마고(麻姑)편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마
 고라는 손톱이 긴 선녀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를 희망하는 한나라 채경이라는
 관리의 욕망에서 비롯된 이야기인데, 영역할 때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

서 가독성을 위해 주를 달기로 했다. 중국 최고의 고전 시인 이태백은 ‘Tae Baek Lee’로 번역하였으나 이것은 우리 식 표현이어서 ‘Li Po’로 수정하였다. ‘얼시구 얼시구 절시구’의 후렴 귀는 소리 나는 대로 ‘Eolshigu, eolshigu, jeolshigu’로 적기로 했다.

다음은 굿거리 처음에 여러 신령을 초청하기 위해 가창되는 지두서(指頭書) 중 경성 지두서의 일부를 인용한다.

(사례 2)

천지(天地)현황(玄黃) 생긴 후에 일월(日月)영축(盈昃) 되엿세라
 만물이 번성하여 산천이 개탁시(開拓時)에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은 산악지조종(山岳之祖宗)이요
 황하수(黃河水)는 성유백(聖流伯)이라
 백두산(白頭山)이 주산(主山)이요 한라산(漢拏山)이 남산이라
 두만강(豆滿腔)이 청룡(靑龍)되고 압록강(鴨綠江)이 백호(白虎)로다
 건곤(乾坤)이 개벽(開闢)시(時) 별계(別界)로 되엿스니
 지세도 좃커니와 풍경도 그지 없다.

삼조선치국시(三朝鮮治國時)에 임금이 그췌신고
 도당씨(陶唐氏) 시절에는 단국의 조선이요
 문왕(文王)의 별조시에는 기자의 조선이요
 초한(楚漢)의 시절에는 위만의 조선이요
 변마진(卞馬辰) 삼한국(三韓國)은 홍망의 자취없고

광해일품 광주이품 수원 정삼품인데
 팔달문 내달아 면으로 다니시고 지점으로 다닐계
 아모동 거하옵신 아모 성대한 가중에 이 정성 드리올계
 - 경성 지두서 - (『한국의 무속문화』 92)

After the creation of the heaven and the earth,
 the sun and the moon have risen and set.
 When all the creations became prosperous
 and mountains and rivers started to be formed,
 The first peak of Mt. Kunlun became the father of all the mountains.
 The Hwangha river became the holy guardian of all the rivers.

Mt. Baekdu was the guardian mountain.
Mt. Halla became that in the south.
The Tuman river is the blue dragon.
The Yalu river is the white tiger.
As they were made specially when the universe was created,
their geographical features as well as their landscapes are very good.

Who were the kings during the eras of 3 Joseon states?
During the time of Taodangshi in China,
it was a country called Joseon ruled by King Dankun.
During the time of King Mun of China,
it was the Chosun of Wiman.
There are no more traces of any rise and fall of the Three Kingdoms of
Byunhan, Mahan and Jinhan.

As the first rank of Kwanghae, the second of Kwangju
and the third of Suwon.
Our god goes to the township and passes through Paldal gate,
Let _____ in _____dong offer sincerity to Our God.
(The song from the opening ritual in the Seoul area)

(*Culture of Korean Shamanism* 128-29)

대부분의 무가들처럼 위 사례도 원문에 논리성이 결여되어 그대로 옮기면 영어권 독자가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국문학 전공자의 자문을 받아 원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 영어로 옮겨야 한다. 원작자의 의도를 살리면서 형식을 유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원전의 무가는 총 16행이나 원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행을 구분하여 총 23행으로 번역하였다. 무가에는 시간적으로는 천지개벽 이래 중국과 한국의 역사가 개괄적으로 약술되어 조선 왕조까지 다룬다. 공간적으로는 큰 마을에서 작은 마을로 다시 어느 마을로 좁혀지고 그리고 어느 성씨 집으로 굿하는 공간으로 좁혀진다. 지두서는 이렇게 신이 내릴 장소를 신에게 알리는 무가이다. 이 무가는 특히 현대 한국인 독자들에게도 매우 낯선 지명들과 왕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천지(天地)현황(玄黃) 생긴 후에 일월(日月)영축(盈昃) 되었세라’의 의미는 검은 하늘과 누런 땅이 생긴 후에 해와 달이 차고 기울었다는 의미인데 이 천자문의 의미가 50대 이후 한국인에게는 상당히 익숙하기에 별 문제가 없지만 한국의 젊은 독자와 서양의 독자들은 이해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짐작된다. 글자 그대로 직역할 경우 특히 서양인에게 왜 검은 하늘과 누런 땅을 언급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문장을 ‘After the creation of the heaven and the earth, the sun and the moon have risen and set,’로 영역하는 경우와 자구를 모두 살려 ‘black heaven and the yellow earth’로 영역하는 경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심하였다. 결국 가독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색깔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청배의 의미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국 황하강의 발원지인 곤륜산은 중국식 발음에 따라 ‘Mt. Kunlun’으로 적었고 ‘산악지조종’이라는 의미는 왕산이라는 뜻으로 산의 조상은 곤륜산이며 천하의 산을 모두 곤륜산의 지산이라는 중국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드러낸다. ‘황하수(黃河水)는 성유백(聖流伯)이라’에서 ‘성유백(聖流伯)’은 ‘성유백(聖乳白)’이 잘 못 전달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문화 역사적인 의미에서 황하강은 신성한 어머니의 젖줄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성지두서 원문을 몇 군데 검토한 결과 ‘성유백(聖流伯)’으로 모두 표기되어 있기에 원문대로 ‘The Hwangha river became the holy guardian of all the rivers.’로 번역하였다. 건곤(乾坤)이 개벽(開闢)시(時) 별계(別界)로 되었스니 지세도 좃커니와 풍경도 그지없다.’는 ‘Because they had become different from the ordinary world when the universe was created’로 초역하였으나 시의 묘미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별계’의 번역을 특별히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As they were made specially when the universe was created’로 교정하였다. 삼조선치국시(三朝鮮治國時), 도당씨(陶唐氏) 시절, 문왕(文王)의 별조시, 초한(楚漢)등 한국 역사를 보는 시간의 기점이 모두 중국이라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요하였다. 한국 무가의 기본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성이 이기(伊耆), 이름은 방훈(放勳), 호는 도당씨(陶唐氏)인 요나라 왕에 대한 영문 표기는 중국식 발음에 따라 ‘Taodangshi’로 표기하였다. 마지막 행의 ‘아모동 거하옵신 아모’는 신 내림을 요청하는 아무개 마을 아무개 성씨를 지칭하는 것이다.

다음 사례는 오산 열두거리 중 <손곳>으로 신이 오는 과정을 진술한 무가이다.

(사례 3)

압혜는밀하님, 뒤에는스달하님
불나듯이나오신이
오실때, 어둠나라침침나라
산을넘고물을건느시는그나
마타령, 마치령, 장포산, 장덕산넘우시고
물흔뎨물건느시고
압혜압로강, 뒤에뒤로강, 의주월강다다르니
사공아배대여라
사공이하는말이, 배도업고닷도업소
옛날병란시에나무배는떠나가고
돌배는갈아안고, 흙배는풀어지고
배도업고닷도업소
네비업다고, 손신별상(두신별성)못같손야
수양버들홀터내, 두넙데역꺼마주잇고
빅도모고닷도모고, 그깁흔맑은여울
계손의거동보소, 신고낙귀하고건너을물
한십도안못고, 나는듯이건너를 온다 - 오산 열두거리 중 <손곳> -

(『한국의 무속문화』 93-4)

Honorable Sun ahead and honorable Moon behind
Our god rushing to come out
goes over mountains
and across rivers of the country of darkness and dimness.
Going over Mata Hill, Machi Hill, Mt. Jangpo and Mt. Jangdeok
and passing over waters,
when he arrives in the River Ujuwol
by crossing over River Abrok in front, and River Dwiro behind him.
The god said, "Boatman, get the boat ready for me."
The boatman answered,
"There is neither a boat nor an anchor."
During the war in the past,

our wooden boats drifted away,
 stone boats sank and earthen boats dissolved.
 Hence, no boats nor anchors.”
 The god said,
 “How is it possible that I cannot pass over the water without your boat!
 By stripping off leaves of a willow tree
 and connecting a couple of leaves together
 I will make both the boat and the anchor
 to get across such a deep and clear water.”
 Look at the way how my guest ghost moves!
 Painful, but with a joyful heart
 He is getting over the water at a breath.
 (From the Son-kut among twelves georis in the Osan area)

(*Culture of Korean Shamanism* 131)

신이 오는 모습을 서술하는 것을 ‘노정기’라고 하는데 ‘노정기’는 대개 먼 길을 여행하는 것과 같이 산을 넘고 강물을 건너서 걸어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원문은 총 17행이나, 역시 가독성을 위해 임의로 행 구분을 하였다. ‘압해는밀하님, 뒤에는팔하님’에서 ‘밀하님’은 일하님이 잘 못 전해진 것으로 추측되며, 하님은 존칭 접미사로 앞에는 해님, 뒤에는 달님을 지칭한 것으로 보여 “Honorable Sun ahead, and honorable Moon behind”로 번역하였다. ‘물흔멘물 건느시고’는 물마다 건느시고의 의미로 ‘passing over waters’로 영역하기로 했다. ‘넙테’는 잎자루의 고어로서 ‘수양버들홀터내, 두넙테역꺼마주잇고’는 ‘By stripping off leaves of a willow tree/ and connecting a couple of leaves together’로 영역하였는데 의미는 잘 전달되지만 고어 특유의 맛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신고낙귀’는 괴로워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이며 ‘한심도안못고’는 단숨에 오고 있는 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Painful, but with a joyful heart He is getting over the water at a breath’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신고낙귀’라는 말이 주는 강렬한 반전의 의미나 ‘한심도안못고’라는 어휘가 주는 숨가쁜 긴장감의 맛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이 모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어려움 내지 필자의 한계로 느껴졌다.

축원 가운데 ‘망자축원’은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무하는 진오귀굿, 오구굿,

씨김곳 등에서 불리어 지는 무가이다. 망자축원은 혼령이 사자에게 끌려 저승으로 인도되고 저승에서 이승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과정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사례 4)

저승사자들이 망재씨 자손들이 정성이 지극하다고 대공을 칭찬 인정을 받으신후 혼백호신 고히 모시고 승전 들어가실제 동내점촌 로소인이 일시에 모여들어 상구를 태출하여 전나무 장강 편수 마줄 마줄 남대단 휘장 흑운 단 뚜껍 백비단 앙장 금전지 물너 좌우로 늘이우고 오색들임 붉은 띠를 나는 듯이 차려놓고 열두 명 받침꾼이 전전제 지내인후 간간이 끝나메고 요령 쟁쟁 치는 소리 구천영혼 슬프도다 - 죽엄의 말 전승 -
(『한국의 무속문화』 98-9)

After the messengers of death have applauded the sons and grandsons of the deceased according to their sincerity and earnestness in their prayer for taking care of the soul of the deceased, they start their journey with the soul to the world of the dead. All the village people, young and old, gather together and the twelve pallbearers, after the ritual, shoulder the funeral bier which has been hung with an insignia and colorful bands. The sound of the hand-bells makes the souls in Hades sad. (From words of death which have been handed down) (*Culture of Korean Shamanism* 138)

‘망자축원’은 영어로 번역했을 때 전달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었다. 가독성을 지향하는 번역전략을 적용하는 가운데 원문의 묘미를 살릴 수 없는 때가 종종 발생했다. ‘망재씨 자손들’은 “the sons and grandsons of the deceased”으로 평이하게 영역하였다. ‘혼백호신’도 ‘soul’로 번역할 경우 ‘혼’이라는 깊은 의미의 한국적인 맛은 소실된 느낌이 든다. ‘동내점촌 로소인’은 풀어서 ‘All the village people, young and old’로 표현하여 평범하지만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도록 집중했다. 화려하게 치장된 상여가 나가는 모습은 담긴 의미를 전달하도록 번역하여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용한 사례는 ‘공수’이다. ‘공수’는 무녀의 몸속으로 내림한 신이 무녀의 입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다. ‘공수’는 신의 언어이기에 ‘해라

체'의 반말로 진술되며 인간의 잘못을 꾸짖고 도와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공수'는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 신이 인간에게 어떤 보장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병의 치료 방법이나 재액을 예방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사례 5)

허씨 귀주야 이것이 무엇이나 원숭이 입내냐 뗏저고리 부적이나 이것만 도와주고 이것만 생겨주었느냐 먹는 것이 누것이며 쓰는 것이 누것이나 모다 우리 대감 수위에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냐 허씨귀주야 네 이 정성을 위할제 힘도 많이 쓰고 애도 많이 썼음으로 우리 대감께서 소례를 대례로 질거라 받으시고 구진일 제치시고 먹고남고 쓰고남게 도와주시거든 우리 대감님 우위에서 도와주시는 줄 알아라 - 서울 지역 대감공수 -

(『한국의 무속문화』 95)

You, Mrs. Huh, what is this? Do you play the ape? Or a charm of a filthy jacket? Have I (the god) helped you so terribly like this? Have I given you abuse like this? Who gave you what you eat and use? Aren't they the result of help from our *Daegam*? You, Mrs. Huh, due to the sake of your earnestness and having been through many hardships, our *Daegam* is willing to accept this small offering rather than a big one and when our god drives away the misfortunes from you and provides you with enough goods to use, you must realize that they are the result of his help." (From *Daegam* gongsu in the Seoul area)

(*Culture of Korean Shamanism* 132-33)

상기 예문은 구어체 성격이 가장 강해서 영역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영역을 하더라도 직역을 하면 목표문화권 독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말 고어(古語)의 독특한 맛을 많이 유지하면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케 하는 예문이다. 결국 우리 말의 맛을 충실하게 살리는 것보다는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번역하였다. 시 형식이 아니어서 행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5행을 9행으로 늘려서 영역하였다. '허씨 귀주야'는 'You, Mrs. Huh'로 의미를 전달하였다. '원숭이 입내냐?'는 어설픈게 남 하듯이 따라하느냐의 뜻으로 'Do you play the ape?'로 직

역함으로써 원어의 의미를 살렸다고 생각된다. 기타 부분들은 원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우회적으로 풀어서 영역하였다.

3. 결론

본 논문은 필자가 영역했던 「한국의 무가」의 번역문과 원문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가독성을 위해 시도한 몇 가지 전략을 고찰해 보았다. 번역 전략은 목표문화권 독자들에게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몇 가지 사례에서 소개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번역전략은 시 형식의 경우, 원문의 길이에 구애 받지 않고 단문으로 나누어 내용 전달에 충실하였고, 서술 형식의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무가’별로 각각 무가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다음에 문단 단위로 묶어서 의미를 파악한 뒤, 세부적인 단어나 표현을 맞춰 나갔다. 또한 영역에서는 이중 표기와 역주를 달아서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번역의 충실성에 치중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 번역을 단순화하기도 했다. 때로는 원문이 영역을 통해 가독성은 높으나 원문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비유적 의미가 축소되고 평범한 언어로 번역되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또한 가독성을 위해 번역문의 난이도를 조절하기도 했다. 원문에 사용된 고어의 비유적이고 섬세한 아름다움이 상실되는 문제가 때때로 대두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무속문화에 대한 번역에서 집중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이 앞으로 한국 전통 무속문화 번역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리라 기대한다. 절대적이고 완벽한 번역은 없겠지만 완벽한 번역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미진한 문제들은 향후 한국 무속전문가들과의 깊이 있는 공동 작업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한국 무속문화에 대한 수준 높은 번역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전신용 엮음 (1998) 『한국의 무속문화』, 서울: 박이정.
- 김순영 (2009) 「문학 번역에서 L1 번역과 L2 번역이 번역 텍스트에 미치는 영향 -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영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0(4): 41-59.
- 김효중 (2008) 「시 영역에 관한 고찰」, 『번역학 연구』 9(1): 96-115.
- 박경일 (2008) 「비교문학과 번역공동체 - 윤희주의 시 <자화상> 영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9(4): 93-141.
- 원영희 (2006)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시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7(2): 127-49.
- 이상원 (2008) 「문학 번역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번역학 연구』 9(2): 149-65.
- 최정화 (2000) 『통역번역입문』, 서울: 신론사.
- Barnwell, Katharine (1980)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Translation*, Horselys Green: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Benjamin, Walter (2004) 'The Task of the Translation: An Introduction to the Translation of Baudelaire's *Tableaux Parisiens*', i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 Kim, Miryang (1999) *Culture of Korean Shamanism*. English Translation by Shinyong Jeon (ed) of 『한국의 무속문화』, Seoul: Park Y Jeong.
- Manchester, P.T. (1951) 'Verse Translation as an Interpretive Art', *Hispania* 34: 68-73.
- Marmaridou, A.S.S. (1996) 'Directionality in Translation' *Target* 8(1): 49-i73.
- Nabokove, Valdimir (2004) 'Problems of Translation: *ONEGIN* English', i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 Newmark, Peter (1998) *Textbook of Translation*, Oxford: Pergamon Press.

[Abstract]

**Translation of Korean Shamatic Songs into English:
Strategies for Readability**

Kim, Miryang
(Kyungin Women's Colle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effective strategies for translating Korean traditional shamatic songs into English. As previously discussed in other previous papers, we face several difficulties when we are involved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the difficulty in translating L1(Korean) into L2(English), the difficulty in translating literature, and lack of specialized knowledge in traditional culture which operates within and around a work of literature.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relating to the work of translating Korean shamatic songs into English, translators must understand that more weight has to be put on readability than on faithfulness in translating shamatic songs. The translation strategies introduc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o ensure readability, lengthy sentences are fragmented into multiple short sentences with various punctuation marks. Second, as to the translation of most conceptually and culturally different words and expressions, they are simplified at either the lexical or phrasal level, without losing the original connotation. Finally, with regard to the translation of most difficult expressions to understand, they are paraphrased with some degree of adjustment at translators' discretion. Focusing on readability rather than faithfulness in the translation of Korean shamatic songs might disappoint some scholars as well as certain groups of readers. However, by implementing the above strategies, it is expected that the difficulties that continue to bedevil the work of translating traditional shamatic songs into English may be resolved to some extent.

▶ Key Words: Korean Shamatic Songs, translation strategies, readability, translation into L2, directionality in translation

김미량

경인여자대학 관광학부 부교수

mrkim@kic.ac.kr

관심분야: 번역과 문화, 고전 영역, 영미회곡 국역

논문투고일: 2010년 10월 29일

심사완료일: 2010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30일